

창1:1-5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은 현대인에게 가장 도전되는 말의 하나입니다. 혹시 밤하늘 가득한 별을, 언제 보셨습니까? 요즘 비가 자주 와 그렇지만 맑게 갠 날, TV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셀폰까지 끄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심호흡 깊이 들이쉬고 밤하늘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하늘이 얼마나 클 걸 같으세요? 여러분 익숙한 과학 용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시속 49만 마일이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돕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돌아도, 은하계를 한바퀴 다 돌려면 이억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 말고도, 십억개가 넘는 은하계가 더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표현 못할 때, 사람들은 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아이 태어날 때 그 감격을, 출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걸로 대치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무리 무딘 사람도 아! 감탄하는데, 그게 시입니다. 창조 기사는 시입니다. 신화라서 시가 아니라, 과학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시란 장르로 표현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밤하늘 별들을 다 합하면, 지구 모든 해변의 모든 노래알 수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별들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있게 움직입니다. 질서 있으려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만약 그 우주가 우연 발생해, 우연이란 힘이 그 질서가 유지한다 믿으려면, 실제로는 이 놀라운 질서 뒤에 하나님이 있다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있는 하늘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는 땅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1:1-5 함께 읽습니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건, 무슨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엡 1:9-10 뭐랍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목적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 하는 것봐서 결정할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참여해 결정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우리 말로는 ‘좋다’로 번역하지만, 참되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진선미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혼란이나 분열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모든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것이지만, 창조 목적에 이미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체가 객체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대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사실은, 어떤 과학 용어로도 다 기술 못합니다. 첫 아이 낳을 때 감격도 다 기술 못 하는데, 하물며 모든 생명을 낳을 때 감격을 어찌 기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걸 창조한 목적이 사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창조 시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 합니다. 독창적인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지으신 만물을 완벽히 다스립니다. 그 사실을 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존엄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종이냐 자유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설령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 아기 생명까지도 존엄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는 뜨거운 논란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대충돌이 생겨 우주가 생겼다는 빅뱅이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만 해놓고, 저절로 수천만년간 우주가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종교에는 창조설화가 있고, 어떻게 지구가 생겼는지 설명하는 방식도 종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마다 제 각각 우주 기원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은 믿음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가설이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타당성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셨다 노래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지으셨나를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며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면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만 과학이고, 창조론은 허구라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존엄한 삶 살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류 조상은 유인원이고, 유인원은 원숭이가 진화했고. 원숭이는 하등동물에서 진화했고, 하등동물은 유연히 전기방전에 의해 발생했고, 전기 방전은 우주의 대충돌 빅뱅 때 생겼다"는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그런 다윈주의를 마치 더 이상 반론할 여지가 없는 과학인양 현대 대중 교육기관들이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과학적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다윈주의 진화론도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정말 찰스 다윈 가설을 맞다면, 왜 유인원과 원숭이 사이 화석은 없고, 원숭이와 그 이전 단계 사이의 화석은 없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화론 가설이 맞다면, 인간 존재 근거는 '우연'입니다. 우연 발생해 의미 없는 인생 살다, 죽으면 단지 물질로 소멸되는 겁니다. 6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이천만 반혁명분자를 숙청한 스탈린 행위를 정죄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창조 기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날을 24시간 하루로 보는 문자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무한한 시간 심지어 수백만년도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 창조과학회가 지금 빠진 함정입니다. 창조과학회는 젊은 지구 나이를 믿습니다. 거기 동의 않는다고 회원을 제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도 손 들어주지 않습니다. '날'이란 단어 뜻이 그렇게 둘 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24시간 하루는 태양과 달을 기준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지으신 건 넷째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 사흘은, 24시간 하루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시를 과학으로 해석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성경은 창조 기간이 전부 얼마나 걸렸나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고 깊은 이야기는 얼마나 걸렸냐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 할 일입니다. 성경은 단지 어떻게 만들었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있고 논리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창조하기 전에,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그런 특권을 가진 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냐가 issue가 아니라, 육천년이든 육억년이든 하나님이 만드셨고, 당신 원하신대로 만드셨단 사실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는 말은, 창조 기사의 틀을 제공합니다. 처음 사흘에 하나님은 우주의 틀을 짭니다. 그 다음 사흘은 땅에 생물을 채우십니다. 첫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셔서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 장면은 사 31: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 새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면, 그 전에 우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태초란 시간도, 우주란 공간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지으시는데, 보통 무가 아닙니다. 절대 무입니다. 완벽한 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이 지으신 그분께 있습니다. 절대 무에서 먼저 하나도 다 창조하셨으니, 소유권은 지으신 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옛새 동안 지으셨는데, 제일 먼저 뭘 지으십니까? 첫날 빛을 지으십니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아무 것도 없어야는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날 사역입니다. 첫날 전에는 절대 무라야 하는데, 아닙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뭡니까? 절대 무에서 우주를 지었고, 첫날 빛을 지으셨음, 그 전엔 암 것도 없어야는데, 2절 땅도, 흑암도, 수면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무에서 지으신 게 아니라, 첫날 빛을 짓기 전에, 이미 지을 여러 재료가 있었던 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재료를 조합해 이 우주를 지었던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창세기 주석에서 어거스틴은, ‘절대 무’와 ‘상대 무’의 개념을 채용해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절대 무에서 상대 무를 창조하시고, 상대 무에서 가시적인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 설명합니다. 2절은 상대 무의 상태입니다. 이미 절대 무에서 상대 무를 지어내신 뒤입니다. 1절 ‘창조하시니라’는 절대 무에서 먼저 상대 무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 2절 그 상대 무에서 비로소 이 우주를 지으신 겁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조합해 피조세계를 지으신 게 아니라, 절대 무에서 먼저 상대 무를 짓고, 거기서 더 구체적인 이 우주를 지으신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절대 무, 없는데서 왔습니다. 절대 무에서 하나님에 의해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없던 자가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라’ 해 세상에 난 게 아니라, 사람도 절대 무에서 왔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로부터 참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폴 틸리히는 인간을 ‘경계선상의 존재’라 그립니다. 왜 인간이 경계선상의 존재입니까? 절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발은 허무에 딛고 있고, 참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존재에도 참여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허무와 존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허무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건, 우리가 허무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비둘기만 귀소본능 있고, 연어에게만 회귀본능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허무로 복귀하려는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표현된 게 불안입니다. 불안은 대상이 없이 그저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위험합니다. 대상이 뚜렷하면 그 대상을 제거하면 되지만, 불안은 그 대상이 없습니다. 불안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있습니다. 불안은 허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은 허무의 유혹입니다. 허무가 돌아오란 유혹입니다. 죽음의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 가장 치명적 문제가 우울증입니다. OECD국가들 평균보다 몇배나 자살율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남의 나라 자살 문제까지 특집으로 다룹니까? 과거 일본이 그랬는데, 현재는 일본 2배나 됩니다. 청소년 사망률 1위도 자살입니다. 연예인까지 유명인까지, 지방선거 끝나고 낙선한 사람들까지 자살이 유행입니다. 이게 다 허무의 유혹 때문입니다. 어째야 합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무시하고 망각하면 사라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경계선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의 유혹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창조자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당신 닮게 지어주신 그분에 대한 회기본능 또한 있습니다. 그걸 흔히 종교성이랍니다. 우리가 올 때는 허무에서 왔지만, 갈 때는 다 창조주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낱알이 결산할,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허무를 가장한 자살 충동은 사람에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다' 속삭입니다. 올 때는 무에서 온 게 맞지만, 갈 때는 분명 영원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허무의 유혹을 극복할 비결은 참 존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에 선 존재 인간이 근원적 불안과 허무를 이기고, 참 평안을 누리려면 그길 밖에 없습니다. 다른 처방은 다 placebo 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합니다. 진화론의 다른 이름은 무신론입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소본능입니다. 창조주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첫 부분에 '인생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다.' 고백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평생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고, 불안과 우울증 위협에 시달리는 무신론 진화론을 의지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잊는다고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절반은 허무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계선에 선 존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